

[새봄 기층 탐방]

‘중화민족 한가족’, 특별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설명절

—강서성 젊은 부부, 연변서 특별한 음력설 나들이 즐겨



관광객 장제녀씨가 ‘로병사의 집’ 당지부 서기 서숙자와 함께 노래 〈대중국〉을 부르고 있다.

전통 명절인 음력설이 되면 중화민족은 가족들이 모여 명절 음식을 차려놓고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특히 올해는 중국 음력설이 2024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목록에 성공적으로 등재된 후 처음으로 맞는 설명절이다.

일전, 강서성 구강시(九江市)에서 온 젊은 부부가 2,600여키로미터 떨어진, 민족풍정이 짙은 연변에서 특별한 ‘식구’들을 만나 이색적인 새해 민속 체험을 하면서 잊지 못할 색다른 설명절을 보내게 되었다.

정월 초이튿날인 1월 30일, 연길시 진학가두에 위치한 ‘로병사의 집’은 이른아침부터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다. 연길 ‘로병사의 집’ 당지부 서기이며 주인인 서숙자는 전통 치마저고리를 곁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자 바쁘게 돌아다녔다. 연길시진학구 관광사업위원회 사업일군, 연길시진학가두 관련 책임자, 진학가두 문경사회구역과 신양사회구역 책임자들도 이른아침부터 ‘로병사의 집’에 도착하여 일손을 도왔다. 과일이 신선한지, 빠진 음식은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너도나도 잔뜩웃으며 바빠 돌아왔다.

12시경, 신양사회구역 일군들은 직접 연길시역에 가 장제녀사 부부를 마중했다. 일행은 인차 차로 ‘로병사의 집’으로 이동했다. 장제녀사 부부가 ‘로병사의 집’에 들어서자 안에 있던 인

원들은 오색 종이테프를 터뜨리고 경쾌한 북소리와 열렬한 박수로 그들을 뜨겁게 맞이했다.

장제녀사는 “심양에서 관광을 하던 중 연변에서 공시한 ‘다채로운 연변·민속적인 설명절 보내기’ 공고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는데 행운스럽게 당첨되었습니다. 출발전에 전화로 미리 연계해긴 했지만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을 줄은 진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제녀사에 따르면 자기 지인들은 대부분 음력설이면 주변 도시로 관광을 떠나는데 이렇게 먼곳까지 오는 경우는 적다고 했다. 그는 “동북은 명절 분위기가 아주 짙습니다. 그중에서도 왕홍도시로 이름난 연길시에 와서 조선족 민속풍정을 한번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번 행을 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장제녀사 부부는 “연길시역에서 ‘로병사의 집’으로 오는 길에 도로 양쪽에 설치된 오색명품꽃등불과 복주머니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라면서 “연길은 음력설 분위기가 짙고 연변민들의 열정은 이 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실감케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로병사의 집’ 해설원의 안내하에 장제녀사 부부는 ‘로병사의 집’ 봉사중심을 참관하면서 흥색연길의 흥색문화에 대해 료해했다. 그들은 “이번 겨울에 흥색연길의 흥색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연길은 강서 구강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모두 길

은 흥색력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 더욱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이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참관을 마치고 나서 장제녀사 부부는 문경사회구역과 신양사회구역에서 정성들어 준비한 명절 음식을 맛보고 관련 책임자들과 답소를 나누었다. 닭곱, 고등어졸임, 갈비찜, 찹떡, 김밥, 돌솥비빔밥 등 20여가지 민족 특색이 짙은 전통 음식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다. 맛과 향을 모두 갖춘 음식들은 조선족 음식문화를 타지 관광객들에게 생생하게 전시했다.

연길 ‘로병사의 집’ 당지부 서기이며 주인인 서숙자는 “로혁명근거지 강서성에서 온 젊은 부부에게 환영을 표한다. 연길과 강서성 구강시는 모두 두터운 흥색력사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오늘의 만남은 더욱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행을 통해 연변의 음력설 풍토인정을 체험하고 흥색력사를 료해하며 ‘중화민족 한가족’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구역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다채로운 문예공연이 펼쳐지며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다. 흥겨운 민요에 현장은 춤판으로 이어졌고 너도나도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음력설을 즐겼다. “연변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닭을 대접하지요.”라고

하면서 진학가두 책임자가 닭다리를 쫓 찢어서 두 손님의 그릇에 담아주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명절밥상에 빙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현장은 따스하고 화기애애한 한가족 명절 장면을 방불케 했다.

장제녀사 부부는 “연길의 열정적인 환대에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전통 미식을 맛보고 연변의 음력설 풍경과 풍토인정을 체험했으며 흥색문화를 료해하게 되었습니다. 연길인민들은 다재다능하고 열정적입니다. 오늘 ‘중화민족 한가족’이라는 말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이번 행은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연변의 열정과 따스함에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면 주변 지인들에게 연변 관광을 진심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서숙자와 함께 노래 〈대중국〉을 불렀다.

우리 모두 하나의 대가족이 있으니 이름은 바로 중국이라네 형제자매도 많고 경지도 좋네…

문경사회구역당위 서기 허월덕은 “이번 활동은 ‘다채로운 연변을 찾아 민속 음력설을 보내자’를 주제로 주지속기관당사업위원회와 연길시진학구관광사업위원회가 조직하고 진학가두 및 문경사회구역과 신양사회구역에서 주관했다. 관광객들이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단위에서 일련의 준비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여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전력으로 보장했다.”고 전했다.

료해에 따르면 올해 음력설 연휴 기간 연변은 화기애애하고 조화로운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다. 이번 음력설에는 장제녀사 부부처럼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았는바 연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방방곡곡에서 물려온 관광객들은 따스함과 즐거움, 그리고 감동을 수확했다.

이번 활동은 연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과 방문 활동을 통해 연길의 력사문화, 풍토인정을 료해하고 가족같은 따스함과 지역 특색의 문화 매력 느끼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동시에 이번 활동은 단순한 관광 체험에 그치지 않고 여러 민족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뒤와 앞으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감상하고 교류와 융합 속에서 민족단결의 꽃을 활짝 피우도록 했다.

/ 리진기자



매하구시, 금연활동으로 시민들 건강 수호



최근년간 매하구시는 금연환경 건설, 사회동원 강화, 과학보급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금연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함으로써 광범한 대중들의 금연의식을 점차 ‘피동금연’에서 ‘주동금연’으로 전환했다.

매하구시제2실험소학교에서는 ‘흡연금지’라는 표지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학생들은 잇달아 문명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매하구시교육국 관련 책임자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시적으로 ‘금연교정’ 창건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러 중소학교들에서는 잇달아 개학 첫 수업, ‘금연’ 표지 부착, 교정 주변 환경 감독관리 강화 등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연교정’은 매하구시 금연환경 건설의 축소판이다. 최근년간 매하구시는 지속적으로 일련의 금연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흡연, 간접흡연의 위해를 보급했으며 금연의식을 강화하여 금연환경과 문명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업기사회구역에서 관련 사업일군들은 설명서 및 선전책자를 배포하면서 주민들에게 흡연 및 간접흡연의 위해와 금연의 우점을 선전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공공장소, 직장 및 대중교통에서 금연할 것을 호소했다. 해풍호공원에서 붉은색 조끼를 입은 ‘금연행동’ 자원봉사자들이 막대기시탕으로 관광객들의 담배를 교환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적극적

으로 협조했는바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자원봉사자들에게 건넸다. 이런 문명화된 권유 방식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해하고 지지했다. 매하구시의 한 식당, 식재이 만석의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었다. 크지 않은 가게의 벽과 식탁에는 모두 ‘금연’에 관한 따뜻한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매하구에서는 백화점, 병원, 식당, 대중교통, 사회구역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 ‘금연’ 표지와 선전화가 있다. 선전 강도가 커짐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觀念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공공장소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시민 당선생이 말했다.

료해에 따르면 전면 금연, 전면 금연 사업기제와 제도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하구시는 금연지도소조를 설립하고 흡연 금지 사업을 각 업종의 일상 관리에 포함시켰다. 이와 동시에 관련 부문은 금연 감독 력량을 부단히 확대하고 련합감독을 전개하여 공공장소의 금연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규정을 위반하고 흡연하는 일이 한층 더 감소되도록 확보했다. 현재, 전 시 46개 당정기관은 이미 전부 건설 사업을 완수했고 52개 공립학교는 모두 금연학교 표준에 도달했으며 일부 사회구역에서는 이미 금연가정 건설을 전개하여 량호한 금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길림일보

연변 청년자원봉사자들

음력설 려객 봉사활동 전개

1월 22일 오후 2시, 연길시역에 들어서니 붉은 조끼를 입은 청년자원봉사자들이 매표소, 대합실, 출입구 등 연길시역 안팎을 누비며 려객을 도와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가 하면 자동매표기 앞에서 표를 구매하기 어려워하는 려객들을 위해 앞에서 조작을 도와주기도 하고 곳곳을 청소도 하면서 각자 분주히 돌아치고 있었다. 알고보니 이들은 음력설을 맞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선 청년들이었다.

까지 광항 직원분들의 고생을 직접 체험했어요.”라며 “려객들의 미소가 가장 값진 보상”이라고 말했다.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서 청년자원봉사자들은 곳곳에서 활약하면서 려객들에게 자문인도, 질서유지 등 자원봉사를 제공하여 공항의 음력설 운수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 공항 공청단총지부위원회 서기 장효나는 “대학생봉사자들의 다국어 능력이 특히 도움이 컸다.”고 평가했다.

◆ 연길시역에서 봉사정신 구현

청소도구를 들고 역내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데 열중하던 연변대학교 구강의학과 림미순학생은 “귀향길에 오르는 려객들이 더욱 생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기다릴 수 있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번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여 고향을 위해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수 있어서 성취감을 느끼는 동시에 청년대학생으로서 자원봉사 정신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2만시간을 넘어선 청춘 기록

연변대학공청단위원회 서기 최광복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2만여시간의 봉사 기록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변대학은 시종 자원봉사를 학생들의 제2수업으로 삼았다. 2018년부터 적극적으로 주 및 연길시와 련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주내 제반 중요 활동, 중대 명절에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학생들을 동원했다. 음력설 운수 기간에만 루계로 연 1,000여명에 달하는 학생을 자원봉사로 파견했으며 자원봉사 시간이 2만시간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 공항에 피어난 다국어 봉사

연길조양천국제공항 수하물 수속대 앞에서 연변대학교 림상의학과 서유민학생이 러시아 관광객과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유민은 봉사 기간 류창한 한국어와 영어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질문에 답변해주면서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연변대학교 계산기과학및기술학과 김현우학생은 한 할머니의 수하물을 들어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로약사 수속 도움부터 다국어 안내

/ 연변일보

장백산 아래 따뜻한 수호자들

백산변경관리지대 마록구변경파출소 이민관리경찰들의 이야기

‘장백산 아래 제1현, 압록강 발원지 제1도시’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장백조선족자치현의 겨울철은 맑은 하늘이 주위의 자연풍경과 서로 잘 어우러져 유난히 친근해보이며 마치 손에 와닿을 듯한 느낌을 준다. 바로 이곳에서 조국의 변경 일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길림출입경변감사총역 백산변경관리지대 마록구변경파출소의 이민관리경찰들이다.

붉은 초봉이 높이 걸려있고 폭죽이 밤하늘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마록구진 과원조선족민속촌 곳곳은 짙은 음력설 분위기가 넘쳐난다. 과원촌의 문화광장에서 조선족 복장을 입은 손에 중국결과 붉은 초봉불을 든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경찰들과 흥겨운 마음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비할 데 없는 기쁨의 웃음이 넘쳐흐른다. 그들은 경찰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조국의 변경과 창성을 축복하고 전통 명절인

음력설을 보내고 있었다.

과원촌은 조선족 집거촌이다. 전 촌 85% 이상의 청장년들이 외지로 로무를 나간 상황이라 현재 촌에는 독거로인과 류재아동이 대부분이다. 그중 73세 장순희로인의 일상은 바로 과원촌 독거로인의 축소판이다. 평소 파출소 경찰들이 찾아와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돕는다. 경찰들은 주동적으로 독거로인들이 ‘시급해하고 어려워하며 바라고 근심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시종 주둔지 소수민족 군중과 호흡을 같이하고 마음을 이어가고 운명을 같이하면서 민족단결의 꽃이 이 땅에서 점점 더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있으며 물고기와 물의 관계마냥 경찰과 군중들간의 농후한 정이 ‘뿌리를 내리고 싹트게’ 하고 있다.

장순희로인의 집 주방 찬장에 배려된 사진들은 경찰과 군중들의 깊은 정을 잘 증명해준다. 사진 속에서 여러 경찰들이 장순희로인과 함께 밥을 짓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명절을 보내

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어떤 사진은 시간이 많이 지나 이미 누렇게 색이 바랬지만 세월의 침적 속 경찰과 장순희로인의 짙은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다년간 파출소 경찰들은 한번 또 한번 바뀌었지만 독거로인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그 관심만은 결코 변함이 없었다.

과원촌을 둘러보면 주변의 건축양식과 확연히 다른 작은 집이 유난히 눈에 띈다. “저곳은 ‘방배광장경무봉사소’라고 불립니다. 지금 우리 과원촌과 G331 국도는 모두 인기 관광지 되었습니다. 저 경무봉사소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곳입니다. 효률이 아주 높습니다.”라고 촌민들이 전했다.

“그리고 저 경무봉사소는 단지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우리 과원촌 촌민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경무봉사소에 가서 경찰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언제든지 경찰들은 항상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편리한 경무봉사소입니다!”

“뱃배전 심수에서 온 한 관광객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자 저 경무봉사소를 찾아왔지요. 그랬더니 얼마 안돼서 경찰들이 핸드폰을 찾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한 촌민이 이야기했다.

“여기에 있는 촌민들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라고 한 촌민이 말문을 떼자 그 뒤를 이어 “우리 집 지붕을 수리해주었습니다.”, “머칠전 우리 집에 와서 장작을 패주었습니다.”, “해마다 우리 집 촌련은 경찰들이 불러줍니다.” 라고 촌민들이 너도나도 경찰들의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경찰 리봉은 로인들에게 “우리는 한가족입니다. 우리 경찰들은 모두 어르신들의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라고 전했다. / 도시석간